

〈한중록〉의 이야기 세계와 가능 세계*

- 혜경궁 홍씨의 독서 경험과 글쓰기 행위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김정경**

〈차례〉

1. 서론
2. 이야기 세계와 가능 세계
3. 「사도세자」의 이야기 세계
4. 「사도세자」의 코드화된 기호
5. 「사도세자」의 가능 세계
6. 결론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서술자의 신빙성에 초점을 맞추어 〈한중록〉을 해석하는 작업이 혜경궁의 글쓰기가 갖는 의미의 일부만을 보여주는 데에 머물 수 있다고 보고, 혜경궁이 미처 의식하지 못했으나 텍스트가 말하고 있는, 서술하는 인물의 발화와 행위 이면에 놓인 코드 혹은 이러한 서술을 가능하게 한 의미론적 토대를 읽어내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한중록〉을 현실 세계가 아닌, 텍스트를 둘러싼 가능 세계와의 관계 안에서 검토했는데, 이야기 세계와 현실 세계 사이에 가능 세계의 층위를 설정함으로써, 홍씨 가문의 신원(伸冤) 대리인 혹은 궁중 비극의 희생자로서의 혜경궁보다는,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의미화하고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욕망과 좌절을 표현하고자 노력한 글쓰기 주체로서의 혜경궁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경모궁의 죽음을 둘러싼 세간의 이설이 무엇이었던 혜경궁이 「사도세자」를 통해 밝히고자 하는 것은 다음의 질문에 대한 해답이었다. 경모궁은 참된 군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또한 경모궁의 비극적 죽음에는 마땅한 이유가 있는가? 혜경

* 이 논문은 2022년도 인천대학교 기초학문 육성 연구비를 지원받아 작성되었음.

** 인천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궁에 따르면 경모궁은 훌륭한 유교적 군주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불치의 병증을 함께 안고 있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유교적 이상을 구현하는 군주가 되기에는 종합적으로 모자람이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그러한 불치의 병증은 그의 안타까운 죽음의 궁극적 원인이 되었다. 요컨대 혜경궁이 보기에 경모궁은 사(邪)에 경도되어 이상적 군주로서의 자질을 결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비극적인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실과 함께 혜경궁이 왕이 될 수 없는 자신의 신분과 세자보다 뛰어난 자질이 공존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에 모순을 느끼고 있음을 알았다. 혜경궁은 유교적 대의와 이상이라는 측면에서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왕으로서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태도와 자질을 온전히 지닌 왕으로서 적합한 인물이지만, 여성이기에 왕의 자리가 ‘허용’되지 않는 인물인 것이다.

이 글에서는 혜경궁의 이와 같은 자기 인식이 당대 여성들이 즐겨 읽었던 소설의 독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당대에,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여성 인물이 남장을 통해 잠시나마 영웅의 위상을 획득하는 이야기가 널리 읽혔으며, 혜경궁은 이 같은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결핍과 한계를 인식하는 동시에, 유교적 대의와 이념에 충실한 주인공이 되는 세계를 꿈꿀 수 있었으리라고 본 것이다.

주제어 한중록, 임오화변, 가능세계, 이야기세계, 기호사각형, 여성영웅

1. 서론

이 글에서는 혜경궁 홍씨의 <한중록> 가운데 주로 경모궁에 관한 기록인 기(其) 2와 3의 의미구조를 찾고, 이를 토대로 혜경궁의 인식 체계를 규명해보고자 한다.¹⁾ 「내 남편 사도세자」²⁾는 혜경궁이 1802년 봄에 초고

1) 연구자들은 제목과 표기가 다양한 <한중록>을 기1,2,3,4로 나누는데, 정병설은 이 가운데 기2와 기3이 하나이며, 서문이 있는 기3이 기2의 앞부분인 것으로 본다. 이 글에서는 버클리 대학 동아시아도서관 소장 한글본 『한동만록(中謄錄)』의 ‘악(樂)’과

를 쓰고 1805년 4월에 탈고한 것으로³⁾,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게 된 일의 경과를 사도세자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시간적 순서에 따라 세세히 그려나간 글이다.”⁴⁾ ‘역사기록(historiography)’이라고 규정될 만큼 일의 경과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지만, 경모궁의 죽음을 둘러싼 세간의 이설을 반박하려는 뚜렷한 목적이 문면에 명시되어 있기에,⁵⁾ 서술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 글에서는 서술자의 신빙성에 초점을 맞추어 〈한중록〉을 해석하는 작업이 혜경궁의 글쓰기가 갖는 의미의 일부만을 보여주는 데에 머물 수 있다고 보고, 혜경궁이 미처 의식하지 못했으나 텍스트가 말하고 있는, 서술하는 인물의 발화와 행위 이면에 놓인 코드 혹은 이러한 서술을 가능하게 한 의미론적 토대를 읽어내는 데 논의를 집중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한중록〉을 현실 세계가 아닌, 텍스트를 둘러싼 가능 세계와의 관계 안에서 이해하려 한다. 이야기 세계와 현실 세계 사이에 가능 세계의 층위를 설정함으로써, 홍씨 가문의 신원(伸冤) 대리인 혹은 궁중 비극의 희생자로서의 혜경궁보다는,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의미화하고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욕망과 좌절을 표현하고자 노력한 글쓰기 주체로서의 혜경궁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사(射)’ 곧 제2권과 제3권을 저본으로 한, 정병설 주석 『원본 한중록』의 제1부 「내 남편 사도세자」를 기본 자료로 한다. 이하 인용은 모두 이 책에서 한다. 혜경궁 홍씨, 『한중록』, 정병설 옮김, 문학동네, 2010, 443~445쪽.

- 2) 「내 남편 사도세자」는 기2와 기3의 내용을 토대로 정병설이 붙인 제목이며, 이후로는 「사도세자」로 표시한다.
- 3) 이 텍스트는 혜경궁이 가순궁(嘉順宮)의 부탁을 받아 순조가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있도록 쓴 글이다. 정병설, 「한중록의 신고찰」, 『고전문학연구』 34, 한국고전문학회, 2008, 180~182쪽, 조혜진, 「조선후기 여성의 자기서사 연구」, 서울대 국문과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2, 32쪽.
- 4) 혜경궁 홍씨, 정병설 주석, 『원본 한중록』, 문학동네, 2010, 452쪽.
- 5) 위의 책, 452~453쪽.

〈한중록〉을 서술자의 의식적인, 또는 무의식적인 시선에 의해 구성된 서사로 읽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진행된 연구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김보현⁶⁾, 조혜진⁷⁾ 등의 논의를 들 수 있다. 이들의 연구는 〈한중록〉 각 편에 대한 독립적인 시각의 연구를 지향하고, 혜경궁을 몰락한 기문의 대리인보다는 저자/작가로서 주목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한편, 혜경궁이 임오화변의 원인을 경모궁의 병증에 두고 있으며, 텍스트 문면에 비교적 상세히 묘사되어있는 경모궁의 특이한 행동과 의대증 같은 증상 때문에 경모궁의 정신질환을 집중적으로 다룬 연구들이 다수 있는데, 그 가운데 정하은·김창윤은 경모궁의 기이한 행동에 대해 정신의학적으로 전문적인 검토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들은 경모궁에게 양극성 장애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혜경궁의 증상에 대한 기술이 상당히 상세하고 구체적이기에 〈한중록〉의 내용이 신빙성이 높다고 본다.⁸⁾

아버지가 아들을 뒤주에 가두어 죽음에 이르게 한 비극적 사건을 이해하

6) 김보현은 이 글과 동일한 텍스트를 대상으로 혜경궁의 발화 양태를 분석하여 그녀의 비극적 현실 인식이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세계를 공격적이고 이상화된 세계로 포장하였음을 주장한다. 이 연구는 무엇보다 혜경궁의 다양한 태도와 해석을 면밀히 검토하여 텍스트에 내재한 모순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보현, 「〈한중록〉의 발화에 대한 양태 분석」, 『여성문학연구』 32, 여성문학회, 2014, 211~212쪽; 「〈자기록〉과 〈한중록〉의 가능 세계와 서사성 연구」, 『한국고전연구』 51, 한국고전연구학회, 2020, 31~56쪽.

7) 조혜진은 자기서사의 분석에 목적을 두고 있기에, 〈한중록〉 가운데 1795년에 저술된 「회고」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그는 텍스트의 서술 방식을 면밀히 검토하여 〈한중록〉에 정쟁에 대해 항변하려는 자아가 두드러진다고 보고, 이를 변론적 자아라 명명하는데, 텍스트에 내재적인 특질을 근거로 집필 동기를 찾아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라 하겠다. 조혜진(2022), 앞의 논문, 32쪽 참조.

8) 정하은·김창윤은 사도세자가 여러 차례의 우울삽화 및 조증삽화를 겪고, 기분삽화가 재발과 관해를 반복하는 경과를 보였으며, 기분장애의 가족력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사도세자에게 양극성 장애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정하은·김창윤, 「사도세자에 대한 정신의학적 고찰: 사도세자, 양극성 장애 환자인가 당쟁의 희생양인가」,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53(5), 대한신경정신의학회, 2014, 307~308쪽.

기 위한 여러 시도들이 있어 왔고, 이러한 노력이 경모궁의 기행과 이들 부자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해석하는데 매우 유의미한 시사점을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영조와 경모궁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소환·재해석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방증일 것이다.⁹⁾ 이에 본고에서는 텍스트 내적 관계에 천착한 이상의 논의들과 같은 맥락에서 텍스트가 지시한다고 믿어지는 현실 세계가 아니라 이러한 텍스트를 생산한 가능 세계를 구성해보고¹⁰⁾, 이를 토대로 혜경궁이 어떠한 맥락 속에서 경모궁의 죽음을 이해하는가를 알아냄으로써 경모궁과 그의 죽음, 나아가 혜경궁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2. 이야기 세계와 가능 세계

이 글에서는 〈한중록〉, 그중에서도 「사도세자」를 통해 혜경궁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내기 위해 ‘가능 세계’ 개념을 활용한다. 가능 세계란 라이프니츠로부터 비롯된 개념으로 20세기 이래로 필연성과 가능성의 양상적 작용소를 위한 의미론적 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편리한 도구로 사용되어왔다.¹¹⁾ 고전 문학 연구에서도 이 개념을 활용하여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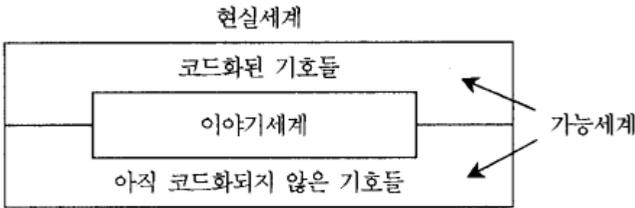
9) 김수연, 「사도세자 이야기」를 반복 재연하는 한국인의 내면 풍경, 『문학치료연구』 45, 한국문학치료학회, 2017, 107~131쪽.

10) 〈한중록〉의 현실 세계는 임오화변이 일어난 세계이다. 〈한중록〉의 이야기 세계 역시 임오화변을 그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 텍스트의 현실 세계와 가능 세계를 구분하는 이유는 이야기 세계는 서술자 혜경궁에 의해 코드화된 기호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혜경궁이 서술한 이야기 세계는 혜경궁이 현실 세계라고 믿고 있는 가능 세계로부터 생성된 기호와 약호로 되어있다. 텍스트의 작자와 독자 모두가 〈한중록〉을 사실의 기록이라 믿는다 하더라도 텍스트에 재현된 세계가 현실 세계와 동일할 수는 없다.

11) Ruth Ronen, *Possible World in Literary The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p.5; Marie-Laure Ryan, *Possible Worlds, Artificial*

양한 논의들이 진행되어왔는데, 허구 세계의 특질을 규명하는 논의들과 문화콘텐츠의 해석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¹²⁾

송효섭은 텍스트와 이를 둘러싼 가능 세계 그리고 현실 세계를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나타낸다.



이 그림에서 이야기 세계는 가능 세계로부터 생성된 것이다. 따라서 가능 세계는 이야기 세계에 선행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송효섭은 이야기로 코드화되기 이전의 가능 세계의 기호들이 이야기로 코드화되는 회로를 두 가지로 설정하고, 예코의 과대코드화와 과소코드화의 개념을 빌려, 미리 정해진 규칙이 없는 상태(과소코드화)와 이미 정립된 규칙이 있는 상태(과대코드화)의 상호 작용으로 이를 설명한다. 이처럼 논리적으로는 가능 세계가 이야기 세계에 선행하지만, 실제로 가능 세계는 이야기 세계를 통해

Intelligence, and Narrative Theory, Bloomington &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91, pp.16~21, 송효섭, 「도깨비의 기호학」, 『기호학연구』 16, 한국기호학회, 2004, 173쪽에서 재인용.

12) 오세정, 「현대 문화콘텐츠의 서사 세계 연구-가능 세계 분석을 통한 세계관 규명과 설화의 세계관 이해」, 『기호학연구』 67, 한국기호학회, 2021, 101~130쪽; 서유석, 「문학과 이야기의 허구화 양상과 그 의미-가능세계 의미론을 중심으로-」, 『동아시아고대학』 55, 동아시아고대학회, 2019, 24~52쪽; 정제호, 「고전의 각인, 콘텐츠의 도전-‘가능세계’의 관점에서 본 『홍부전』과 영화 <홍부>(2018)의 서사적 성패」, 『어문연구』 50(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22, 197~219쪽; 신호림, 「퇴계 설화에 나타난 지식의 성격과 의미-가능세계의 관점에서」, 『고전과 해석』 36, 고전한문학연구학회, 2022, 35~61쪽.

서만 알 수 있다. 우리는 이야기로 코드화되기 이전의 기호들로 이루어진 가능 세계의 모습을 상상할 수는 없으며, 이야기 세계로부터 추론된 가능 세계의 모습만을 기술할 수 있을 뿐이다.

이 글에서는 송효섭이 정리한 두 가지 회로를 활용하되 방향을 바꾸어 이야기 세계로부터 가능 세계를 추론하는 두 가지 경로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텍스트에 나타난 기호들을, 명확히 해석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기호들을 해석할 수 있는 코드를 찾아내 이러한 코드로 이루어진 세계를 기술하려는 것이다. 이야기 세계의 코드화된 기호들은 가능 세계로부터 관련된 코드를 찾을 수 있지만, 아직 코드화되지 않은 기호들은 가능 세계로부터 생성되었으나 이 기호들을 해석할 수 있는 코드를 가능 세계에서 찾을 수 없다. 이처럼 명확한 해석이 불가능한 기호들, 즉 이야기 세계의 아직 코드화되지 않은 기호들을 해석하기 위해 송효섭은 현실 세계를 참조한다.

이 글에서는 이야기 세계의 코드화된 기호를 그레마스의 기호사각형으로 나타냄으로써, 이야기 세계의 코드화되지 않은 기호들을 해석할 수 있는 가능 세계를 상상해보려 한다. 기호사각형의 논리 구조를 활용한다면 코드화되지는 않았으나 이야기 세계에 존재하는 기호들이 발생한 가능 세계를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된 코드화되지 않은 기호들의 가능 세계와 코드화된 기호들의 가능 세계의 모습은 각각 잠재된 플롯과 현동화된 플롯으로 기술할 수 있다.¹³⁾

이야기가 발생한 기원으로 설정되는 심층적이고 보편적인 코드로서 그

13) 황인순은 최근 논의에서 개별 텍스트의 여행 기술에 나타난 소망-잠재세계의 면모에 주목했다. 가능 세계 이론 가운데 현동화된 세계와 잠재된 세계의 대립을 강조하고, 잠재된 세계의 '소망'을 읽어낸 이 연구 또한 여성 서사를 대상으로 했다는 사실은, 가능 세계 이론이 여성의 욕망과 좌절을 읽어내는 데 매우 유용함을 말해준다. 황인순, 「여성 여행서사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97,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22, 397쪽.

레마스가 말한 기호사각형을 찾아내는/구성하는 작업은, 아직 코드화되지 않은 기호들의 가능 세계를 찾아내어 「사도세자」라는 이야기 세계를 가능하게 한 보편적인 의미구조를 드러내는 작업과 동일한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감춰졌던 서술자의 목소리, 즉 부재함으로써 존재하는 서술자의 욕망을 알려주는 동시에 텍스트의 인식적 지향을 말해줄 수 있다.¹⁴⁾ 기호사각형은 텍스트에 내재한 문제와 결핍이 어떠한 방향으로 해소될 수 있는지를 제시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찾아낸 「사도세자」의 심층에 놓인 보편 구조-기호사각형-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실현될 수 있으며, 여기서 제시한 것은 연구자에 의해 선택적으로 실현된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층의 구조를 해석학적 상황에서 선택적으로 구성하는 이 같은 작업은 〈한중록〉을 해석하는 다양한 시도를 반성적으로 읽어내고, 서술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3. 「사도세자」의 이야기 세계

「사도세자」는 경모궁의 출생부터 그의 발병, 증상의 심화 그리고 그로 인한 처벌로서의 죽음까지를 기록한 것이다. 혜경궁은 경모궁을 가장 가까이에서 오랜 기간 지켜본 이로서, 임오화변이라는 사건이 어떠한 이유에서 벌어졌는지, 당시에 이 일에 연루된 인물들이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를 손자인 순조에게 전하려는 목적에서 이 글을 쓴다고 밝히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도세자」에서 서술된 임오화변은 천성이 바르고 효심이 지극한 경모궁이, 아버지 영조의 냉정하고 엄한 태도 때문에 병이 깊어져,

14) 황인순, 「그레마스의 서사도식과 황룡사 설화」, 『이론으로 서사 읽기』, 역락, 2020, 277쪽.

결국 친모인 선희궁의 결단에 따라 영조의 명으로 뒤주에 갇혀 목숨을 잃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해 서술하면서 혜경궁은, 남편이자 세자인 경모궁에 대해서는 주로 귀신에 썩인 듯한 병증을, 시아버지이자 임금인 영조에 대해서는 기이한 성품이나 자질을, 그리고 자신과 선희궁을 비롯한 궁궐 여성들에 대해서는 대의나 규범을 앞세우는 태도를 강조한다. 이 가운데 특히 경모궁에 대해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개인적 특질이 극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그리고 있는데, 병증이 발현되기 이전에는 선희궁과 비슷한 자질을 지닌 모습으로, 병증이 발현되었을 때는 영조와 흡사한 모습으로 서술한다.

병증이 보이지 않았던 시기, 즉 발병하지 않았던 10세 이전과 발병 이후이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의 경모궁은 누구보다 총명하고 효성이 지극한, 제왕의 자질을 타고난 예비 군주의 모습이었다.¹⁵⁾ 이때의 경모궁은 유교적인 규범, 특히 효와 우애 그리고 자애 등에서 훌륭한 모습과 태도를 지닌 것으로 묘사된다.¹⁶⁾ 그러나 천성이 어질고 효성이 지극했던 경모

15) 혜경궁은 궁중 기록을 들어 경모궁이 태어났을 때부터 그 자질이 비범했음을 강조하는데, 그에 따르면 경모궁은 백일 전에도 기이한 일이 많았으며, 두 살에는 글자를 배워 한자를 육십여 자나 쓴데다, 세 살에는 팔괘를 알고, 사치를 부끄러워하며 비단과 무명을 구분할 정도였다. 이에 혜경궁은 경모궁이 비범하고, 탁월하며 거룩한 자질을 타고났다고 상찬한다. 이러한 서술이 담긴 부분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경모궁겨오셔 나오시미 예질이 기억 비범호오시기 특이호오신디라”, “탁월호오시던 줄을 거의 알디라”, “태피 웅장석대호오시고 텃성이 효우충명 호오시니”, “경모궁계오셔 본질이 효우호오실 분 아니라”, “세 입술 정월의 태묘 던알호오시고, 삼월의 입쪽 호오시니, 거룩호오신 즈질을 흠탄 아니리 업더라 호며”, 혜경궁 홍씨, 정병설 주석, 『원본 한중록』, 문학동네, 2010, 19쪽, 21쪽, 25쪽, 30쪽.

16) “온항하라 호오실 적은 사람 다 죽게 되얏더니 선문을 나오시니 격화가 나리오시던지 념을 나리오셔 일노의 작폐를 못 호게 호오시고 디나오신 길히 은위가 병항호오시니 빅성이 고무하야 ‘성명지쥬오시다’ 호고, 형궁의 드오신 후도 일양 덕을 드리오시니 ‘온양 일음이 고요 안정하야 예덕을 축슈찬양하더라’ 하니 그썸 식훤하신 듯 병환이 물너나고 본원 텃성이 동호오시던가 시브더라.”, 위의 책, 97쪽.

“두 말이 삼도의 망극하고 실상의 의기니 선친 슈차 말씀 꺾타야 병환이 망극호오셔

궁은 혜경궁이 병증을 감지한 1744년 이후로¹⁷⁾ 한 번 병에 사로잡히면 아무에게나 함부로 굴며 급기야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인다.

통명년의서 여러 가지로 슈칙이 좃스오시니 그대로 격화와 병환이 점점 더호오서 니관 미질 호오시기가 그때부터 더호오시니, 초상의 거룩히 설위호오시던 일로 비기면 상등의 미질이 잘못호오시는 일이오, 영특년부터 의대의 탈이 나시니 그 말이야 엇디 다 호리오¹⁸⁾

그 늑월부터 화증이 더호오샤 슝름 죽이오시기를 시작호오시니 사름을 죽이오야 머음이 조금 풀니오신디 병환은 점점 더호오시고, 사름 죽이오시는 길이 나니, 인심이 공구호고 죽을 디를 못 어더하니 그런 모양이 어디 이시리오¹⁹⁾

혜경궁은 경모궁의 이러한 변화가 영조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인식한다. 혜경궁이 보기에 영조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과 행동을 자주 보이는 사람이다. 영조는 정성왕후의 죽음 당시 속히 장례 절차를 주관해야 함에도

성궁 위티호심과 종샤 늑늑호기 호흡지간의 이시니 영묘겨오셔 인통망극호오시나 만만 박브득이호오셔 그 처분 호오시고, 경모궁겨오셔도 본심이오실시 진짓 누더기 되실가 근심호고 굵굽호지 병환의 턴성을 일스오셔 당신 호오시는 일을 다 모르시는 지라. 병환 드오신 거시 망극호지 병은 성인도 면치 못한다 하니 경모궁의 일호 누더기 어이 되리오”, 위의 책, 145쪽.

“즈니는 못 생각호니 질지이심호야 점점 어려오니 날은 폐호고 세손을 효장세즈의 양즈를 삼으면 엇지홀가본고”...“두고 보소 즈니는 귀호야 하니 니게 조즌 사름이로더 자니와 조식들은 네스롭고 나만 그리호야 이리되오” 드러더니, 갑신 망극 지원 극통을 당호야 호오시던 말숨을 생각호니 미리지스를 능히 탁냥호야 그날 그 말숨 호오시던 일이 이상호오시고 녁호게 붉스오시던 줄이 원혹 지원호도다., 위의 책, 160쪽.

17) 타고난 어진 본성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을 혜경궁이 감지한 때는 1744년 혼례를 올리고 난 뒤다. 혜경궁은 자신과는 다르게 세수가 더딘 경모궁을 보며 “병이오신가” 여기고, 다음 해에는 병이 들었음을 확신한다.

18) 혜경궁 홍씨, 앞의 책, 74~75쪽.

19) 위의 책, 75~76쪽.

내인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자신이 아끼는 사위의 장례에 다녀오느라 정작 아내의 초상에는 소홀한 모습을 보인다. 또한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특정 인물을 편애하거나 미워하는 등의 충동적이고 비논리적인 특징을 갖고 있기도 하다. 혜경궁은 텍스트 곳곳에서 영조가 유교적 규범의 집행자로서는 부족한, 정념에 휩싸인 변덕스럽고 폭력적인 개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간접적이긴 하지만 명확하게 언급한다.

말숨을 고티여 뵈오셔 ‘죽을 스 즈’, ‘도라갈 귀 즈’를 드 휘호오시고, 츠디나 밧긔 나가오셔 일 보오시던 의디도 7라납스오신 후 안의 드오시고, 불길할 말숨을 슈작호오시거나 듯스오시면 드오실 제 양치질호오시고 이부틀 뵈스오시고 몬져 스름을 브르오셔 한마디라도 처음 말숨을 호오신 후야 안호로 드오시고, 도흔 일과 도티 아니흔 일 호오실 제 출입호오시는 문이 다르오시고, 사랑호는 스름 있는 집의 스랑티 아니호시는 사름이 잇디 못호게 호오시고, 사랑호시는 사름이 든니는 길흔 스랑티 아니호오시는 사름이 든디디 못호게 호오시니, 극히 황공호오디 이증의 녀넉호오시미 감히 앙탁디 못호을 일이라.

더리전이라도 계복이나 형조공스나 친국이나 대궐셔 니르는 불길흔 일의도 즈로 세즈를 시좌화라 호오시고, 화평옹주와 무오성 옹주 즉금 덩쳐라 호는 니 잇는 방의 드러가오실 제는 인견의디를 호오신 후 드러시디 세즈기는 그러티 아니호오셔 밧겨히 정스호고 드오실 제 정스호오신 의디 납스오신 치 길의 오오셔 동궁 브르오셔 “밥 먹으냐” 못즈오셔 디답호오시면 그 디답 듯즈오신 이부틀 그 자리위셔 뵈즈오시고, 그 뵈스오신 물을 화협옹주 잇는 집 광창으로 브르오시고, 옷대궐인즉 담을 넘겨 세슈물을 버리오시니, 글로 갈 거손 아니로디, 엇던 쓰님은 밧긔셔 납즈오시던 의디를 벗고야 보오시고, 이 등한 아드님은 말숨 듯즈오셔 뵈스오신 후야 가오시니²⁰⁾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글자를 꺼리고, 불길한 말을 듣거나 말하면 이를

20) 위의 책, 37~39쪽.

다른 사람에게 떨친 후 안으로 들어가고, 아끼는 자식과 꺼리는 자식을 대할 때 입는 옷을 달리 하는 등 영조의 행위는 비이성적이기 이를 데 없다.²¹⁾ 혜경궁이 옹주를 낳았을 때에도, 화평옹주의 상을 치른지 얼마 되지 않아 기뻐하지 않다가, 화평옹주 몸에 있던 표식이 새로 태어난 옹주에게도 있는 것을 안 이후로 손녀를 극진히 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역시 혜경궁에게는 “허탄하고 괴이”한 일일 뿐이다.²²⁾ 이처럼 「사도세자」의 영조는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며 근거없는 집착과 믿음에 빠져 비일관된 행동을 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이러한 영조와는 대조적으로 선희궁은 유교적 규범과 대의에 충실한 인물로 묘사된다. 혜경궁에 따르면, 경모궁을 뒤주에 가둔 것은 영조이지만, 영조가 이러한 결단을 내린 데에는 경모궁의 친모인 선희궁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경모궁의 병이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여긴 선희궁은 영조를 찾아가 아들을 벌할 것을 청한다. 선희궁은 아들을 잃을지 모르는 참담한 상황에서 대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선희궁이 가오셔 우오시며 고히오시디 “병이 점점 깊혀 벼랄 거시 업스오니 쇼인이 춤아 이 말슴을 정니의 못 호올 일이오디 성공을 보호호옵고 세손을 건지와 종사를 평안이 호옵는 일이 올스오니 대처분을 호오쇼셔” 하고,²³⁾

21) “날마다 친국의 던좌하야 겨오시다가 드오시면 인정 후나 초이경이 되고 삼스경 될 적도 이시니 흐르도 폐티 아니호오시고 “동궁 불너라” 호오셔 “밥 먹으라” 호오셔 디답호오시면 즉시 가오시니 그 디답 시기오셔 그날 친국호오신 일 뻗스오시고 가라 호오시는 일이오시니”, 위의 책, 54~55쪽.

22) “십일일의 영묘겨셔와 선희궁겨셔 안식이 일변 슬프고 일변 깃브신 모양으로 두 분이 오오셔 홀연이 즈는 아히를 기술 그르고 벗겨 보오시더니 과연 표가 이시니 참연호오시고 그 옹주가 환싱호 줄로 분명이 아오셔 그날브터 그 아히를 금시로 귀듯호오셔 화평 형태에게 호오시다시 구오시고, 이 아히 처엄 나실 제는 사외하야주시는 일이 업스오셔 인견호오신 의디 님스오신 처 드러와 보오시더니 그날브터 사위를 극진이 호오시니, 영묘 성몽의 뵈오시던디 그 일이 허탄하고 괴이하야 아올 길이 업더니라.”, 위의 책, 44쪽.

위의 인용에서 알 수 있듯이 선희궁은 자신의 피붙이에게 닥칠 고통과 그로 인한 자신의 슬픔보다는 종사를 위해 왕실의 일원으로서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우선시한다. 혜경궁은 영조의 어린 왕비를 맞이하는 일에 성심을 다하는 선희궁의 모습에도 존경을 표하며, 투기를 하지 말라는 그녀의 가르침을 철저히 따르고자 애쓴다.²⁴⁾ 이처럼 「사도세자」에서는 선희궁을 사사로운 감정보다 규범과 대의를 중시하는 인물, 즉 유교적 이상을 구현하고 실천하는 인물로 그리고 있다.

4. 「사도세자」의 코드화된 기호

「사도세자」에서 병증이 발현되기 이전, 혹은 병증이 발현되지 않을 때의 경모궁과 선희궁을 묘사할 때에는 비범, 탁월, 효우충명, 종사, 나라, 위종국·위성국 등의 표현이 주로 쓰이며, 이 인물들의 긍정적인 자질이 강조된다. 반면 병증이 발현되었을 때의 경모궁과 영조를 묘사할 때에는 환영(幻影), 심화(心火), 옥추경, 귀신, 병환, 허탄, 괴이 등의 부정적인 어휘들이 주로 사용된다. 이러한 대립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건강	병들
정상	비정상
유교	무속
이성	비이성

23) 위의 책, 121쪽.

24) 혜경궁에 따르면 선희궁은 유교적 규범에 충실했던 것에 반해, 영조는 투기를 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혜경궁을 꾸짖었다고 한다. 이처럼 〈한중록〉에서 선희궁과 영조는 대립적인 양상으로 나타나며, 선희궁은 유교적 질서를 대변하고 영조는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는 모습으로 서술된다.

질서		무질서
의리		통
효		불효
충		불충
자애		학대
정(正)	vs	사(邪)

이상의 이항 대립은 혜경궁이 「사도세자」의 주요 인물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코드로서, 이 텍스트에 제시되는 다양한 기호들은 위의 대립 관계를 토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마디로 정(正)과 사(邪)의 대립이라고 구분지을 수 있을 것이다. 정(正)이란 유교적 대의에 충실함을 말한다. 그것은 이성적이고 정상적이며 무엇보다 대의에 충실한 태도이다. 반대로 비합리적이고 변덕스러우며 속신에 의존하는 태도는 정(正)을 버린 태도이고 유교적 대의의 관점에서는 멀리해야 하는 무속적 믿음에 투신하는 태도이다. 혜경궁은 이렇듯 경모궁의 양면적인 특성을 기본적으로 유교적 올바름(正)과 요사스러움(邪)으로 구분하여 이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인물들 역시 이러한 기준 위에서 파악하고 판단한다. 혜경궁의 인식에 따르면 경모궁은 병증의 발현 여부에 따라 유교적 가치를 구현하는 모범적 군주로서의 자질과 유교적 이상과는 거리가 먼 비이성적 개인의 자질을 모두 갖추고 있다. 또한 임오화변과 관련하여 처분을 행한 아버지를 ‘의리’로, 아들을 잃은 어미를 ‘애통’으로 해석할 것이라는 짐작과는 다르게, 혜경궁은 영조를 유교적 기준에 부적합한 사(邪)의 특질로, 선희궁을 유교적 질서에 합당한 정(正)의 특질로 서술하고 있다.

경모궁의 죽음을 둘러싼 세간의 이설이 무엇이었던 혜경궁이 「사도세자」를 통해 밝히고자 하는 것은 다음의 질문에 대한 해답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경모궁은 참된 군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또한 경모궁의 비

극적 죽음에는 마땅한 이유가 있는가? 혜경궁에 따르면 경모궁은 훌륭한 유교적 군주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불치의 병증을 함께 안고 있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유교적 이상을 구현하는 군주가 되기에는 종합적으로 모자람이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그러한 불치의 병증이 그의 안타까운 죽음의 궁극적 원인이 되었다. 요컨대 혜경궁이 보기에 경모궁은 사(邪)에 정도되어 이상적 군주로서의 자질을 결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비극적인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正)과 사(邪)로 대표되는 대립적 자질들이 왕의 자격에 관한 질문과 관계가 있다고 보면, 정(正)과 사(邪)의 축에 나열된 항목들로부터 ‘왕이 될 수 있는 신분’과 ‘왕으로서 적합한 자질’이라는 코드를 추론해볼 수 있을 것이다. 텍스트는 왕이 되려면 왕이 될 수 있는 신분을 타고나야 하는 동시에, 왕으로서 적합한 성품과 기질을 지녀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때 왕이 될 수 있는 신분에 관한 코드는 규범과 허용에 관한 기호들로부터, 왕으로서의 자질에 관한 코드는 개인적 자질과 성품에 관한 항목들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왕의 자격과 관련하여 텍스트로부터 추론한 이 같은 코드는 텍스트상의 주요 이항 대립을 구조화하는 조건이 된다.

왕이 될 수 있는 신분 / 왕이 될 수 없는 신분
 왕으로서 적합한 자질 / 왕으로서 부적합한 자질

왕이 될 수 있는 신분 + 왕으로서 적합한 자질이 있음 = 증상 발현 이전의
 경모궁

왕이 될 수 있는 신분 + 왕으로서 적합한 자질이 없음 = 경모궁, 영조

왕이 될 수 없는 신분 + 왕으로서 적합한 자질이 있음 = 혜경궁, 선희궁

왕이 될 수 없는 신분 + 왕으로서 적합한 자질이 없음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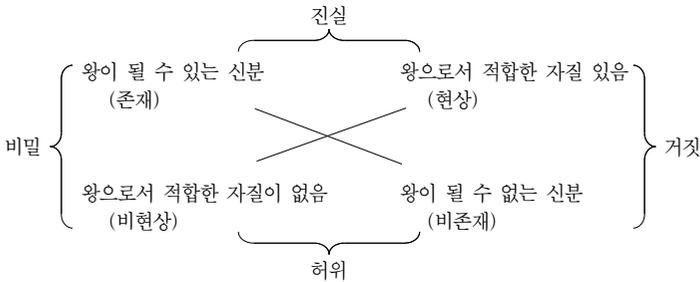
왕이 될 수 있는 신분인가(‘허용’), 그리고 왕에 적합한 기질 및 성품인가(‘적합’)라는 질문에서 찾아낸 이 네 가지 조합 가운데 이야기 세계는 ‘허용+적합’, 그리고 ‘허용+부적합’의 코드를 드러낸다. 「사도세자」는 왕이 될 신분의 세자가 왕에 부적합한 자질 때문에 왕이 되지 못하고 비극적 죽음을 맞이하는 이야기인 것이다. 그러나 「사도세자」는 이처럼 명시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코드뿐만 아니라, 잠재되어 있는 코드들도 가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그레마스의 기호사각형을 통해 「사도세자」에 잠재되어 있는 코드들을 해석하여 이로부터 텍스트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혜경궁의 명시적인 언술 이면에 감춰진 갈등과 의문의 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5. 「사도세자」의 가능 세계

앞서 우리는 왕의 자격을 판단하는 두 가지 근거-‘신분’과 ‘자질’-를 찾아내고, 텍스트가 왕이 될 신분이면서 왕으로서의 자질을 드러내는 자를 진정한 왕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았다. 이는 인물의 행위를 통해 나타나는 왕으로서의 자질인 ‘현상’에 ‘존재’의 지위가 부여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처럼 ‘현상’과 ‘존재’가 일치할 경우, 이 상태는 ‘진실’로 정의된다. 만약 이러한 ‘현상’에 ‘비존재’의 지위가 부여된다면 그것은 ‘거짓’이 된다. 한편 ‘현상’은 ‘비현상’을 반대항으로 가지며, ‘비현상’에도 ‘존재’와 ‘비존재’가 부여될 수 있다. ‘비현상’에 ‘존재’의 지위가 부여되면 ‘비밀’, ‘비존재’의 지위가 부여되면 ‘허위’로 정의된다.²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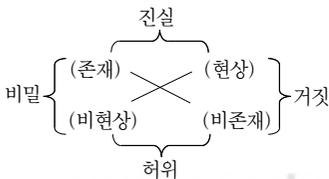
25) 그레마스는 기호사각형의 분절에 따라 진실과 거짓의 범주에 대한 기호학적 해석을 제안하면서, 진실성은 독립된 서술적 동위성을 성립하며, 이 서술적 동위성은 그것의 고유한 지시체적 수준을 계기할 수 있고, 편차와 이탈을 유형화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해서 ‘서술물의 내적 진리’를 설정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레마스, 『의미에 관하여』, 김성도 역, 인간사랑, 1997, 382쪽; 송효섭, 『해체의 설화학』, 서강대학교출판부,

이처럼, 위에서 정리한 ‘허용’과 ‘적합’의 네 가지 조합은 왕의 지위를 타고났는가(‘존재’)와 왕으로서 적합하게 보이는가(‘현상’)의 문제로부터 비롯되며, 이는 ‘존재’와 ‘현상’의 기호사각형으로 나타나는 의미의 본질적 구조에 기반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위에서 제시한 ‘허용(왕이 될 수 있는 신분인지의 여부)’과 ‘적합(왕으로서 적합한 자질의 유무)’의 가능한 조합을 ‘본질’과 ‘현상’의 기호사각형에 대응해보면 다음과 같다.



「사도세자」라는 이야기 세계에서 실현된 것은 기호사각형의 ‘비밀’의 차원이다. 경모궁은 왕이 될 수 있는 신분을 타고 났지만 왕으로서의 적합한 자질은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사도세자」는 텍스트에 실현되지는 않았으나 텍스트의 가능 세계 가운데 하나를 구성하는 ‘거짓’의 축을 가지고 있다. 위의 기호사각형에서 ‘거짓’의 축은 혜경궁 및 선희궁과 관계된다. 지금까지 혜경궁은 경모궁의 아내, 정조의 친모, 영조의 며느리,

2009, 209~210쪽.



홍봉한의 딸이라는 가문과 가족 관계 안에서 이해되었다. 그러나 앞서 검토한 바에 따르면 혜경궁과 선희궁은 텍스트 내부에서 이러한 관계 못지않게, 영조와 경모궁의 대립항으로서의 자질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혜경궁과 선희궁은 공통적으로 유교적 이념에 충실하며, 누구보다 사태를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그에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을 지향한다. 이들은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려 종사를 위한 판단과 실행을 미루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유교적 규범이 권하고 금하는 일들에 충실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옳다고 믿는다.

「사도세자」로부터 추론한 ‘거짓’의 세계는 텍스트에 코드화되지 않았다. 따라서 문면에 서술된 내용만으로는 이 축에 존재하는 혜경궁의 ‘비존재’ 이면서 ‘나타남(현상)’이라는 자질을 어떠한 맥락에서 해석해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이야기 세계와 가능 세계를 둘러싼 현실 세계의 또 다른 텍스트를 참조한다면, 이 인물들이 뛰어난 여성 주인공 대 열등한 남성 주인공의 대립과 갈등을 줄거리로 하는 이야기의 불완전하고 모방적인 성격의 주인공²⁶⁾, 즉 신분을 속이고 능력을 발휘하는 인물과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는 어렵지 않다. 일반적으로 여성영웅소설이라 일컬어지는 작품들에서 여성 인물들은 공통적으로 남장을 하고 과업을 수행하며, 부마로 간택 혹은 중직에 임명되거나 정체를 의심받는 사건이 발생하여 여성이라는 자신의 정체를 고백한다.²⁷⁾ 이 인물들은 대체로 남성과의 관계에서 능력적인 우위를 점하지만 남성을 뛰어넘는 활약을 보여주는 것은 남장을 통해서이며, 여성임이 밝혀진 뒤에는 남성 주인공과 결연하여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간다.

26) 이 작품들의 여성 주인공을 불완전하고 모방적이라고 한 까닭은 이들의 존재와 현상이 불일치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의 신분을 속이기 위해 남장을 하고 능력을 발휘하다가, 결국에는 정체를 드러내거나 정체가 탄로난다.

27) 광보미, 「여성영웅소설의 장르관습과 〈방한립전〉의 여성적 시각」, 『국문학연구』 46, 국문학회, 2022, 90~91쪽.

「사도세자」의 비밀과 거짓의 의미구조는 정확히 이러한 여성영웅소설의 의미구조를 따르고 있다. 그리고 이처럼 「사도세자」가 여성영웅소설의 의미구조를 하나의 가능 세계로 취하고 있다는 사실은 혜경궁이 왜 그토록 영조의 기질과 경모궁의 병증에 집착했어야만 했는지에 대한 하나의 해답을 제시한다. 혜경궁의 인식 체계 안에서 남성은 자신의 지위에 적합하지 않은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 정(正)과 사(邪)의 이항 대립에서 사(邪)의 쪽에 있는 것은 언제나 남성이어야 하며, 그래야 여성이 정(正)의 자질을 발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혜경궁이 판단의 기준으로 믿고 따르는 유교적 이상과 대의에 의하면 여성은 이미 그 자체로 사(邪)의 자질에 해당한다. 소설이라는 허구에서조차 여성은 남장을 했을 경우에만 자신이 지닌 정(正)의 자질을 제대로 펼쳐 보일 수 있다. 여성이라는 타고난 사(邪)의 자질이 감추어졌을 때에만 비로소 한 개인으로서 타고난 정(正)의 자질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유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한 정(正)·사(邪)의 기준에 따르면 남성은 마땅히 왕이 되어야 할 신분이면서 적합한 자질이기도 하다. 그러나 동시에 그 기준에 따르면 영조와 경모궁은 사(邪)에 편향된 부적절한 개인들이기도 하다. 마땅히 바른 데로 일이 진행되자면 왕권은 영조에게서 경모궁에게로 아니라 선희궁에게서 혜경궁 자신에게로 계승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남장조차 불가능한 여성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그 자체로 바르지 않은 사(邪)적인 일이다. 혜경궁은 유교적 이념에 투철한 양반 가문의 지식인으로서 여성이라는 자신의 한계를 잘 인식하고 있으며 그것을 불만 없이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또한 유교적 이념에 투철한 지식인으로서 무속과 속신에 경도된 영조의 기질과 경모궁의 병증에 비판적일 수밖에 없으며, 그것이 제대로 된 영웅에 의해 바로잡힌 세계를 상상하지 않을 수 없다. 혜경궁은 스스로가 왕이 될 수도 없으며 왕이 되어서도 안 되는 존재이지만, 또한 왕으로서 부적합한 인물들이 그 자리에서 유교적

대의와 이상을 저버리는 것을 그대로 지켜볼 수도 없는 존재이기도 하다. 이러한 한계와 모순이 ‘거짓’을 축으로 하는 「사도세자」의 잠재된 이야기 세계, 곧 혜경궁 자신이 여성영웅으로 등장하는 세계를 가능하게 한다. 유교적 이상과 대의에 따르자면 그것은 여성이 스스로 영웅이 되는 이야기이기에 문면의 이야기 세계에 그대로 드러날 수 없는 내용의 것이다. 그러나 역시 유교적 이상과 대의에 따르자면 그것은 사(邪)에 편벽된 현실을 바로 잡는 이야기이기에 이야기 세계에서 완전히 추방될 수도 없는 내용의 것이다. ‘거짓’은 가능 세계의 형태로나마, 이야기 세계 안에 자신의 흔적을 드러내야만 하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은 주인공(왕이나 영웅)의 역할을 맡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처지의 불완전한 주인공이 등장하는 이야기의 코드로 혜경궁을 둘러싼 기호들을 해석한 것이다.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여성 인물이 남장을 통해 잠시나마 진짜 주인공, 즉 존재와 현상이 일치하는 완전한 존재로서의 위상을 획득/연기하는 이야기는 당대의 한글 소설 독자층에 매우 널리 읽혔다. 그러므로 혜경궁에게 열등한 남성 대 우월한 여성의 대립은 익숙한 이야기 코드였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으며, 이처럼 아직 이야기로 표현되지 않은 가능 세계를 이야기 세계와 병치함으로써 우리는 「사도세자」를 남성 주인공의 비극적 좌절을 그리고 있는 한편으로 불완전한 주인공의 불가능한 욕망과 좌절을 담고 있는 텍스트로 볼 수 있게 되었다.²⁸⁾ 이야기 세계에서 추론해낸 기호사각형으로부터 이 텍스트가 무엇을

28) 조선후기 여성의 소설 독서에 관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하였다. 류준경, 「영웅소설의 장르관습과 여성영웅소설」, 『고소설연구』 12, 한국고소설학회, 2001, 5~36쪽; 장시광, 「조선후기 대하소설과 사대부가 여성 독자」, 『동양고전연구』 29, 동양고전학회, 2007, 147~176쪽; 전기화, 「조선후기 여성영웅소설 〈정수정전〉 재고」,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8, 203~228쪽; 정병설, 「여성영웅소설의 전개와 〈傳張兩門錄〉」, 『고전문학연구』 19, 한국고전문학회, 2001, 207~235쪽; 정창권, 「조선훈 궁중여성의 소설문화」, 『여성문학연구』 11, 한국여성문학회, 2004, 209~317쪽; 최윤희, 「〈남정팔난기〉의 여성 영웅과 영웅성 발현 양상」, 『한국고전여

결핍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찾아냈으며, 이러한 결핍을 핵심적인 갈등으로 다루는 가능 세계의 모습을 그려내는 방식으로 혜경궁의 인식 체계를 해석할 수 있는 코드를 발견해낸 것이다.

6. 결론

이 글에서는 「사도세자」의 핵심 사건인 임오화변을 이해할 수 있는 또는 임오화변에 대한 서술을 가능하게 하는 심층의 의미구조를 ‘허용’과 ‘적합’이라는 코드로부터 찾았다. 경모궁은 왕의 유일한 아들이기 때문에 세자가 되어 왕이 될 자격이 있으며, 이는 규범에 따른 것이므로 당연히 이 세계에서 허용된다. 이처럼 ‘허용’이라는 코드를 중심으로 경모궁을 보면 그가 세자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적합’이라는 관점에서 경모궁은 왕이 되기에 누구보다도 부적절하다. 병증이 발현되면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 공포에 휩싸여 자신과 타인에게 폭력을 행하는 경모궁은 왕이 되기에 지극히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다.

반면에 혜경궁은 왕으로서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태도와 자질을 온전히 지녔다. 특히 유교적 대의와 이상이라는 측면에서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텍스트에 서술된 혜경궁은 어린 나이에 부모와 떨어져 낯선 궁궐에서 생활했지만, 그곳에서 나고 자란 경모궁보다 왕실의 예법과 규범에 충실하다. 이처럼 〈한중록〉에 따르면, 왕으로서의 자질이나 태도 면에서 경모궁은 매우 부족하고, 혜경궁은 누구보다 적합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가능 세계 이론과 그레마스의 기호사

성문학연구」 7,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3, 294~327쪽; 김정경, 「『한중록』 「其 一」의 주체 형성 과정 연구」, 『인문학연구』 38, 인천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2, 3~27쪽.

각형을 활용하여, 허용되지 않으나 적합한 존재가 영웅이 되는 세계에 대한 욕망이 텍스트에 내재해 있음을 알아냈다. 그리고 이러한 욕망이 여성 영웅의 활약을 그린, 당대에 널리 읽혔던 소설과 긴밀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 작품이 쓰일 당시에 여성 영웅이 등장하는 중국소설과 한국 소설이 많이 읽혔으며, 특히 〈한중록〉에서 혜경궁이 언급하는 장편소설 〈유씨삼대록〉에 여성 인물 설초벽이 남장을 하고 과거에 급제하는 내용이 나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남장 영웅이 활약하는 이야기와 〈한중록〉의 친연성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중록〉과 그 작자인 혜경궁을 이해하는 데에, 남장한 여성의 활약을 그린 소설들을 참조한 것은 혜경궁과 경모궁의 관계가 이 소설의 우월한 여성 주인공 대 열등한 남성 주인공의 대립 관계와 유사한 것보다도 관련이 있다. 혜경궁은 왕이 될 수 없는 신분과 세자보다 뛰어난 자질이 공존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에 모순을 느끼고 있으며, 이 소설의 주인공들 또한 남성 인물보다 우월함에도 불구하고 ‘남장’이라는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는 이들과 경쟁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혜경궁과 오늘날 여성영웅소설로 분류되는 작품의 주인공 사이의 유사점에 착안하여, 혜경궁의 독서 경험과 자기 이해의 상관성에 대한 가설을 제시해본 것이다.

우리가 자신과 타인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이야기로 표현할 때, 삶의 다양한 경험이 바탕이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양반 여성들도 마찬가지로겠지만 특히 왕실 여성들의 경우 생활 반경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기에 이들에게 자신을 둘러싼 세계의 기호를 해석할 코드를 발견할 수 있는 주된 참조 대상으로 현실 세계의 경험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리하여 이 여성들이 세계를 이해하는 데에 현실 못지않게 이들이 탐독한 서적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선의 사대부가 여성의 자기 이해에 규훈서와 열녀전 등이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했던

것처럼, 조선 후기에 이르러 소설의 독서가 왕실 여성에게 매우 빈번하고 유의미한 활동이었다면, 그것이 이들의 자기 이해와 세계 인식에 끼친 영향을 규명하는 데에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하리라고 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혜경궁으로 대표되는 궁궐 안의 소설 독자에게 이야기 세계는 또 다른 현실 세계일 수 있음을, 즉 이 여성들에게 닥친 고난과 시련을 해석할 수 있는 코드를 제공하는 현실 세계는 다름 아닌 텍스트의 세계, 이야기 세계일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세계 이해가 어떻게 이들의 글쓰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아울러 살펴보았다. 이 글의 논의는 유교적인 규범서들이 제공하는 여성에 관한 이미지와는 다르게 당대의 여성들이 즐겨 읽었던 소설의 독서가 여성의 자기 인식과 글쓰기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추후 논의를 확장하여 조선 후기 여성들의 소설 독서가 이들이 자신의 사회화 조건을 다시 정의하는 데에 영향을 주었음을 드러내어 조선 후기 여성들의 독서 문화와 글쓰기 행위가 갖는 상관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참고문헌

1. 자료

혜경궁 홍씨, 정병설 주석, 『원본 한중록』, 문학동네, 2010, 1~477쪽.

2. 논저

곽보미, 「여성영웅소설의 장르관습과 〈방한립전〉의 여성적 시각」, 『국문학연구』 46호, 국문학회, 2022, 85~110쪽.

김보현, 「〈한중록〉의 발화에 대한 양태 분석」, 『여성문학연구』 32, 한국여성문학회, 2014, 191~215쪽.

_____, 「〈자기록〉과 〈한중록〉의 가능 세계와 서사성 연구」, 『한국고전연구』 51, 한국고전연구학회, 2020, 31~56쪽.

김수연, 「사도세자 이야기를 반복 재연하는 한국인의 내면 풍경」, 『문학치료연구』 45, 한국문학치료학회, 2017, 107~131쪽.

김정경, 「『한중록』 「其一」의 주체 형성 과정 연구」, 『인문학연구』 38, 인천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2, 3~27쪽.

류준경, 「영웅소설의 장르관습과 여성영웅소설」, 『고소설연구』 12, 한국고소설학회, 2001, 5~36쪽.

서유석, 「문기학 이야기의 허구화 양상과 그 의미-가능세계 의미론을 중심으로-」, 『동아시아고대학』 55, 동아시아고대학회, 2019, 24~52쪽.

송효섭, 「도개비의 기호학」, 『기호학연구』 15, 한국기호학회, 2004, 101~145쪽.

신호림, 「퇴계 설화에 나타난 지식의 성격과 의미-가능세계의 관점에서」, 『고전과 해석』 36, 고전한문학연구학회, 2022, 35~61쪽.

오세정, 「현대 문화콘텐츠의 서사 세계 연구-가능 세계 분석을 통한 세계관 규명과 설화의 세계관 이해」, 『기호학연구』 67, 한국기호학회, 2021, 101~130쪽.

장시광, 「조선후기 대하소설과 사대부가 여성 독자」, 『동양고전연구』 29, 동양고전학회, 2007, 147~176쪽.

전기화, 「조선후기 여성영웅소설 〈정수정전〉 재고」,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8, 203~228쪽.

정병설, 「한중록의 신고찰」, 『고전문학연구』 34, 한국고전문학회, 2008, 171~198쪽.

_____, 「여성영웅소설의 전개와 〈傳張兩門錄〉」, 『고전문학연구』 19, 한국고전

- 문학회, 2001, 207~235쪽.
- 정재호, 「고전의 각인, 콘텐츠의 도전-‘가능세계’의 관점에서 본 『홍부전』과 영화 〈홍부〉(2018)의 서사적 성패」, 『어문연구』 50(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22, 197~219쪽.
- 정창권, 「조선조 궁중여성의 소설문화」, 『여성문학연구』 11, 한국여성문학회, 2004, 299~317쪽.
- 정하은·김창윤, 「사도세자에 대한 정신의학적 고찰: 사도세자, 양극성 장애 환자인가 당쟁의 희생양인가」,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53(5), 대한신경정신의학회, 2014, 299~309쪽.
- 조혜진, 「조선후기 여성의 자기서사 연구」, 서울대 국문과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2, 1~231쪽.
- 최윤희, 「〈남정팔난기〉의 여성 영웅과 영웅성 발현 양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3, 294~327쪽.
- 황인순, 「여성 여행서사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97,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22, 389~418쪽.
- 황인순, 「그레마스의 서사도식과 황룡사 설화」, 송효섭 외, 『이론으로 서사 읽기』, 역락, 1~550쪽.
- 혜경궁 홍씨, 『한중록』, 정병설 옮김, 문학동네, 2010, 1~485쪽.
- Greimas, A. J, 『의미에 관하여』, 김성도 역, 인간사랑, 1997, 382쪽; 송효섭, 『해체의 설화학』, 서강대학교출판부, 2009, 1~515쪽.
- Nunning, Ansgar, 조경식 외 역, 『서사론의 새로운 연구 방향』, 한국문화사, 2018, 1~436쪽.
- Marie-Laure Ryan, *Possible World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Narrative Theory*, Bloomington &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91, 1~304쪽.
- Ruth Ronen, *Possible World in Literary The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1~244쪽.

ABSTRACT

The Story World and Possible Worlds of *HanJoong-rok*

Kim, Jong-kyoung

This article seeks to read the codes behind the utterances and actions of the narrators in the *HanJoong-rok*, or the semantic foundations that make such narratives possible. To do so, the *HanJoong-rok* is examined in relation to the possible worlds surrounding the text, rather than the actual world. By establishing a layer of possible worlds between the narrative world and the real world, I wanted to look more specifically at Hyeokgyeonggung as a writing subject, not as an agent of the Hong family or a victim of palace tragedy.

What Hyeogyeeonggung hoped to reveal through the *HanJoong-rok* was the answer to the following questions: Is Gyeongmogung qualified to be a true monarch? According to Hyeogyeeonggung, Gyeongmogung had all the qualifications to be a true monarch, but unfortunately, she also suffered from an incurable disease, madness. In other words, he was collectively incapable of being a monarch who embodied Confucian ideals. And this incurable disease was the ultimate cause of his untimely death. In short, in the eyes of Hyeogyeeonggung, Gyeongmogung lacked the qualities of an ideal monarch, and ultimately his tragic death was inevitable.

We also see that Hyeokgyeonggung is aware of the contradiction between her inability to be king and her qualities that make her superior to the prince. She is fit to be king because she judges everything in terms of Confucian causes and ideals, but she is not "allowed" to be king because she is a woman.

In this article, I argue that this self-perception of Hyeogyeeonggung is closely related to the reading of novels that were popular among women of the time. Stories in which female characters with exceptional abilities

and qualities are temporarily elevated to heroic status through cross-dressing were widely read at the time, and it is through these stories that Hyeogyeongung may have been able to recognize her own deficiencies and limitations, while also dreaming of a world in which she could be a protagonist faithful to Confucian causes and ideals.

Key Words

HanJoong-rok, Hyeogyeongung, Sado, possible worlds, the story world, the semiotic square

논문투고일: 2023.07.25.

심사완료일: 2023.08.08.

게재확정일: 2023.08.11.